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일본의 안보법제 철폐를 요구하는 성명문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4:1)**

2015년 9월 18일, 일본의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은 정부가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라고 부르는 10개의 기존 법률 개정안과 하나의 새로운 법률 제정안을 하나로 묶어서 가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법제(安保法制)' 혹은 '전쟁법안(戦争法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일본 자체가 공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군 등의 동맹국 군대가 전투 상황에 들어간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 위기'로 규정하여 자위대를 전투에 참가시키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가 가능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헌법 제 9 조'에 저촉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2 차 아베(安部) 정권은 일개 내각의 각의 결정(閣議決定)으로 헌법에 관계된 중대한 해석을 변경하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여론의 60%가 반대하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법안을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않은 채 불과 수 개월의 논의만 하고 다수결이라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단숨에 결의(決議)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절차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결의를 강행한 아베 정권과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여당의 억지스러운 처리방식에 우리는 커다란 놀라움과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일본의 헌법 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지키며 평화를 희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다란 파도를 이루어 국회를 둘러 싸고 있으며, 일본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데모와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커녕 숫자의 힘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은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일본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로서 이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 버려 둘 수 없으므로 이 안보법제의 성립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전쟁 법안'을 '평화안전법제' 등으로 부르면서, "어린이들이나 미래의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일본을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아베 총리의 기만성을 결단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더욱이 이 법제(法制)를 "중국, 북한, 한국에 대하여 '억지력(抑止力)'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합리화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동북아시아의 긴장관계는 상당 부분 일본 측의 도발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충분한 사죄와 보상조치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일찍이 침략의 피해를 받았던 국가들을 "가상적국(仮想敵國)"으로 여기는 것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일으킨 과거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 역사 속에서 태어난 기독교회로서 일본을 새로운 전쟁으로 되돌이키려는 이 안보법제의 성립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회에 안보법제를 철폐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안보법제의 철폐를 위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일본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마태복음 5:9)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의 분쟁을 판가름해 주시고 강대국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리라. 그리 되면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 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제가 가꾼 포도나무 그늘, 무화과나무 아래 편히 앉아 쉬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미가 4:3-4)

2015년 9월 22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중래

<관서 지방회> 오사카북부교회 김정길장로 장립식



6월 21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오사카 북부교회에서는 김정길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담임목사 조영철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기도를 한 후에 관서지방회 부회계 교토교회 배양일장로가 성경 낭독을 하고, 김영식명예목사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갈라디아서 5:6,13)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관서지방회장 김종현목사 (나니와교회) 의 사식으로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권면과 축사는 먼저 김정길장로가 소속해 있는 장년회가 축사를 불렀으며, 임직자에 대한 권면은 지방회 부회장인 박성균관목사 (와카야마 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한 권면은 전성삼목사 (후세교회) 가 하였으며, 축사는 지방회 대표로 부회장 김금순장로가 하였다.

또한 기념품과 기념패, 꽃다발을 증정하고 최영준장로가 축문과 축전을 피로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사카 제일교회의 이해준명예목사가 축도하였다.

이번에 장로로 장립 된 김정길장로는 1953년 오사카시 요도가와구에서 태어나, 1983년 11월 7일에 예수 복음교단 코요하시교회 (見城孝志牧師) 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1996년부터 본 교회 집사로 봉사해 왔다.

가족으로는 부인 (全부뻘집사) 과 1남 2녀가 있다.

(보고 : 조영철목사)

<서남지방회> 후쿠오카중앙교회 장로장립식 / 명예장로 추대식

7월 19일 (주일), 후쿠오카 중앙교회에서는 김마리장로 장립식 및 김행자명예장로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김행자명예장로는 22년의 긴 세월 동안 여성 장로의 선구자로 교회뿐만 아니라 지방회와 총회에서 수 많은 봉사 직책을 맡아서 시무장로로 섬겨 왔다. 이제 명예 장로로 추대되기에 새 장로를 간구하던 중에 김마리장로가 장립되어 계속해서 여성 장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바쁜 가운데에도 여러 내빈과 서남지방회 각 교회의 목회자와 신도들이 참여 해 은혜로운 예식을 거행하였다. 예배는 서남지방회장 주문홍목사의 사회로 오리오교회 천봉조목사가 기도하고, 우베교회 최영신목사가 “오직 주님을 따라” (여호수아 14:6~14)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주문홍목사의 사식으로 장로 장립식 및 명예 장로 추대식으로 이어졌다.



금번에 장로로 장립되는 장로에 대한 권면은 쿠마모토교회 김성효목사, 교인들에게는 서남지방회 부회장 이해란목사가 각각 나섰다. 이어진 축사는 총회를 대신하여 총간사 김병호목사와 오리오교회 이규철명예장로가 전했다. 또한 총회 안팎에서의 축전과 축문을 피로하고 나서 후쿠오카 중앙교회 교인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감사하면서 은혜로운 교제를 가졌다.

금번에 장립 된 김마리장로는 교토교회 김창일명예장로의 딸이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코쿠라교회와 후쿠오카 중앙교회에서 26년간 서리집사로 계속 봉사 해 왔다.

(보고 : 김명균)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 ¥200 (宿泊者価格)

<関西지방회> 여성연합회 주최 제 25 회 말씀과 찬양의 축제



9월 13일 (주일) 관서지방회는 오사카교회에서 여성연합회 주최로 제 25 회 “말씀과 찬양 축제” (14 교회 찬양 참가자 175 명을 포함한 337 명 참가) 가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두 교회 (난코, 나라) 가 참가하는 등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대회가 되었다.

제 1 부 예배는 고경미서기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장 김종현목사 (나니와교회) 가 “기류자의 노래” (시편 56:4-9)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제 2 부는 조영은교육 부장의 사회로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으며, 정혜숙회장의 인사와 심사 위원 5 명이 소개되었다.



각 교회 여성회는 찬양 입장에서 퇴장까지 7 분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연습의 성과를 마음껏 발휘하였다. 그 중간에는 관서지방회 남성 합창단의 특별 찬양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치유를 동반한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시상식에서는 축제상을 사카이 교회, 찬양상은 오사카 교회, 말씀상은 교토 교회가 각각 수상했다.

(보고 : 조화자)

<関西地方会> 女性連合会主催 みことばと讚美のフェスティバル



9月13日 (主日)、関西地方会女性連合会主催の第25回「みことばと讚美のフェスティバル」が大坂教会で、14教会、讚美参加者175名を含む337名参加で開催された。特に今年は新たに2教会 (南港・奈良) が参加するなど、喜びと感謝に溢れる大会となった。



第1部の礼拝は、高慶美書記の司会で地方会長金鐘賢牧師 (浪速教会) が「寄留者の歌」 (詩篇 56 : 4 ~ 9) と題して説教した。そして第2部は、曹永恩教育部長の司会で「フェスティバル」 はじまり、丁恵淑会長の挨拶と審査委員5名が紹介された。

各教会の女性会は、入場から退場まで7分の持ち時間のもとで工夫を凝らし、練習の成果を思う存分に発揮した。その中、関西地方会男性コーラスの特別讚美も加わるなど、神さまに栄光を帰する癒しに満ちた恵みと感謝の時間となった。最後の授賞式では、フェスティバル賞を堺教会、讚美賞を大坂教会、みことば賞を京都教会がそれぞれ受賞した。

(報告 : 趙和子)

一財団法人 クリスチャン協会・企業検索サイト
レホボト・ジャパン
 Christian Calling Search Site
<http://www.rehoboth.jp>
 Tel: 090-3945-3373
 e-mail: info@rehoboth.jp
 住所: 兵庫県芦屋市鶴日 10-35-500
 レホボトジャパン 検索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呉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전국 교회 여성 연합회>

제 60 회 정기 총회 / 연수회



전국 교회 여성 연합회는 2008년에 창립 60주년을 축하하였다. 그러나 정기대회는 올 6월 18일(목)~20일(토)에 제 60회를 맞이하여 관서 아카데미 하우스(교토)에서 정기대회와 더불어 연수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주제는 “생명의 말씀 - 우리 만나의 나눔 -” 으로 전국에서 대의원 65명과 여성 회원과 남성 목사의 참여 등으로 총 95명이 참가하였다.

개회예배는 아라이유키목사가 “예수님이야말로 희망”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대회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① 약칭을 “전국 여성회” 라고 해 왔지만 “전국 교회 여성회” 로 한다(제 1장 1조)는 것이 의결되고, ② 제 3장(대의원) 2항, 위원의 대의원권에 대해 “20명 이하의 여성회에 플러스 1명의 대의원들을 준다” 는 추가분 부가, ③ 제 4장에 “고문”(顧問)을 추가하는 것은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색동의 집” 의 권옥화이사장, 이에규부이사장, 박선희명예이사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증정했다.

또한 금번은 나루드 향아리 헌금의 본래의 취지였던 금식 기도회(2일째 아침을 금식)와 2구분 시간 안에 7개의 분과회를 개최하면서 함께 배우고, 또한 몸을 사용하여 즐길 수 있었다.

2일째 아침은 김필순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 우물가 확대판” 을 개최하였다. 성경 우물가는 김필순목사가 총무로 재직중이었던 2013년에 시작되었으며, 여성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이다. 현재에도 전국 교회 여성회 사무실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3일째의 전체토론에서는 분과회 I에서 논의되었던 “총회 헌법과 목사의 임기제” 를 듣고, 우리 총회의 문제와 여성회 역할, 헌법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 등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소예배당을 “진정의 방” 으로 정하여 24시간 기도하도록 개방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방문하여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였다.

폐회예배는 박애선목사가 “하나님이 해 주실 것”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풍성한 교제와 은혜로운 대회와 연수회를 마쳤다. <개선된 새 위원은 일본어 기사 1면을 참조>

(보고 : 박영자)

<청년회 전국 협의회>

제 53 회 정기 전국 협의회

9월 21일(월)~22일(화), 청년회 전국 협의회(이하, 전협) “제 53회 정기 전국 협의회” 가 전국 교회에서 12명(8명 대의원)의 청년들이 참가하여 교토남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첫째 날은 허백기목사(교토남부교회, 신도위원장)의 설교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2014년도 각 지방회 청년회, 각 부, 서기, 총무, 부대표의 연간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신삼대표 위원으로부터 총괄을 듣고 내년을 향한 전망을 공유하였다.

둘째 날은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하였다. 첫 째는 “재일, 일본,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 연수 프로그램”(공동 프로), 둘째는 전협 회칙, 셋째는 지방회 청년회 진흥부의 미래에 대한 것이었다. 모두가 내년도 전협 활동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에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그런 후에 2015년 중앙위원 개선이 이루어졌다. 추천에 의해 1명이 신임되었으며, 2015년도 중앙 위원은 아래와 같다.



代表委員:白勝和(大阪)、副代表委員:張晶洙(川崎)、総務:吳眞雅(大阪)、書記:中野晃徳(名古屋)、渉外部部長:伊藤直人(名古屋)、渉外部員:白勝和、企画部長:吳眞雅、企画部員:李智熙(大阪北部)、広報部長:中野晃徳、広報部員:張晶洙・伊藤直人・李智熙、地方会青年会振興部長:吳眞雅、地方会青年会振興部員:張晶洙・伊藤直人、財政部長:李智熙、財政部員:白勝和

개선 후에는 각 직책과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윤선박 목사(교토남부교회 부목사)가 폐회예배를 인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중앙 위원은 6명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봉사할 것이며, 전국 청년들의 연결의 장을 만들고, 전협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지켜 보며 인도와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들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재일대한기독교회로 이어지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고 전했다.

(보고 : 오진아)